

세계 여성의 해

女 性 과 專 門 職



金 玉 烈  
<숙명여대교수, 政博>

I

한국여성의 社會進出은 8·15를 계기로 하여 활  
발해졌다. 사실 19세기 말에서 20世紀 初期에 걸  
친 開花期로 부터 싹튼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3·1운동, 8·15해방과 6·25동란 등 歷  
史的인 轉換期를 거쳐가면서 확대해 나갔다.

특히 8·15광복은 西歐 民主主義사상의 도입으  
로 새로운 女性觀이 확립되었으며 6·25의 민족  
적인 비극은 여성이 家長의 역할을 맡으므로서  
경제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거기에다 여  
성教育의 보급과 家族觀의 변화, 生活樣式의 변  
화, 社會의식의 向上 등은 한국여성의 社會활동  
을 촉진시켰다.

오늘날 여성의 經濟活動人口에 있어 매년 증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현상 뿐만 아니라 세  
계 도처에서 같은 경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統計를 보면 1973년말 현재의 한국여성  
의 經濟活動人口는 431萬4千명으로 이中 就業者  
數는 421萬6천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 14세 이상의 생산년령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人口의 比率)  
은 40.8%나 되어 前年度보다 1.9%가 더 증가되  
었다(男女 총수는 1,160萬名, 이 중 취업자수는

1,113萬9천명).

이러한 여성의 就業率이 높아진 것에는 두 가  
지의 理由가 있다. 첫째는 社會·經濟的 요청으  
로서 高度의 經濟成長을 들 수 있다. 産業의 近  
代化에 따라 就業構造가 細分化되어 高度의 전  
문지식과 熟練을 필요로 하는 職業으로 부터 단  
순노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人力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經濟成長에 女性  
의 경제활동이 크게 이바지 하였다.

女性人力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全世界에서 인식되고 있다. 國家  
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女性資源의 開發은 20世  
紀가 요청하는 현상으로 「世界여성의 해」의 3大  
主題인 平等, 發展, 平和를 보더라도 그 중대한  
意義를 깨달을 수 있다.

경제의 高度成長과 기술혁신은 계속될 것이므  
로 여성의 精神的,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세계  
적인 여성운동의 展開 등 한국의 職業여성의 질  
과 質도 향상 될 것이다.

둘째 이유로는 여성측의 요인을 들 수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進學이나 就職을 생각하게 되  
었으며, 또 主婦의 生活周期, 생활樣式의 변화,  
社會의식과 교육수준의 向上, 그리고 家計보편

(구배의위의 上昇 높은 물가 등)으로서도 직장 진출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의 變化는 사회나 가정에 있어서의 女性의 地位와 役割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60年 후반에 歐美를 휩쓴 女性解放운동은 女性의 地位向上의 느린 속도에 반기를 들은 것으로서 활발해진 女性의 경제활동과 더불어 오랜동안 논의의 대상이었던 女性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더욱 진지하게 생각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은 유엔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제정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女性의 역할의 변화를 自己에 대한 충실한 表現과 發展의 계기로 힘써야 하며 또한 자기 자신 뿐 아니라 社會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본다.

## II

앞에 말한 바와 같이 女性의 經濟活動은 늘고 있다. 1963년 以來 女性의 經濟活動人口는 年平均 2.5%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며, 女子就業者는 年平均 3.1%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韓國의 女子就業者도 世界的인 水準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量的 增加와는 달리 대부분의 女性이 低賃金인 單純未熟練勞動에 從事하고 있다. 여기서 職業別 女子就業構造를 살펴볼 것 같은데 農林 漁業關係從事者가 就業總數의 53.5%, 販賣從事者가 13.4%, 어업이 2.1%, 「서비스」 職業從事者가 10.5%, 專門 管理 技術的 職業從事者가 1.7% (기능공 포함), 事務職 從事者가 2.9%, 기타(15.9%)로 되어 있으며 農林 漁業관계 從事者가 과반수를 넘는 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1973年 現在) 每年 農林, 水産業部門만을 제외하고 女子就業者가 增加하고 있는 實情이다. 事務從事者는 5年동안에 1.3%에서 2.2%로 늘어났고 專門 管理, 技術職 職業從事者는 계속 늘어나 71년에는 2.6%의 比率를 나타냈으나, 72년에 1.6%로 내렸다.

女性의 職業中 高度의 技術과 專門性을 요구하는 職種에 從事하는 사람의 增加는 그들이 社

회에 공헌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增加가 기대된다.

항상 低賃金에 시달리고, 좋지 못한 環境에서 作業하고 있는 일반 勤勞女性에 比較해서 職業 女性의 中樞라 할 수 있는 專門職 女性의 增加는 女性의 社會的 地位를 向上하는 데 큰 役割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專門職 女性은 1973年 現在 全國에서 7萬3千名으로서 全女性就業者의 1.7%이고, 男女를 합친 專門, 技術職 從事者中에서는 22%를 차지한다. 이들 外國의 경우와 比較해 보면 全女性就業者中 專門, 技術職, 管理職을 차지하는 比率이 美國이 17.3%, 日本이 6.5%, 英國의 11.2%로 나타나 있고 男女專門職中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美國이 35.9%, 日本이 39.6%, 比律賓이 32%로서 韓國의 專門職 女性이 차지하는 比率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차후도 專門職에 從事하는 女性의 增加가 바람직하다.

다음은 職業 女性의 分布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활발하나 就業構造面에서는 後進性을 탈피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보건사회부가 「세계 여성의 해」를 맞아 집계한 전국의 직업 여성은 産業別 賃金 근로자 55만7천4백7명, 職能別 직업 여성은 22만4천7백62명 등 모두 78만2천1백69명으로 나타났다.

職能別로 보면 美容師가 13만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敎職員 4만1천3백3명, 간호원이 2만2천5백63명이다(派獨간호원은 7천명). 다음이 公務員으로 1만9천1백88명, 약사 6천1백71명, 助産員 2천9백15명, 醫師 2천1백3명순으로 배었다. 國會議員은 8명, 法曹人은 4명(判事 3명, 辯士 1명)이며 言論·放送人이 3백명 「스튜어디스」 2백4명, 女流리행사 2명이다.

公務員중에는 技能職이 1만3천2백46명으로 가장 많고 5급공무원이 4천1백23명, 4급공무원이 1천1백96명이며, 警察職에 있는 여성은 4백28명이다. 현재 여성공무원중 최고직위는 2급이며 8명이 있고, 3급공무원은 1백64명이다. 특이한 것은 소방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도 23명이 나 된다고 한다.

産業別 임금근로 여성은 製造業 종사자가 45만 9천6백9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65년의 36.5%에서 56%로 크게 늘어 산업분야의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就業구조면에서는 매우 후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여성 취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專門知識이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各職種別 취업자 총수중 여자의 構成比가 管理職 1%, 사무직 15%, 전문직 22%의 낮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은 직업여성의 분포였으며 다음은 그들의 취업년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個人的, 家庭的, 社會的 여려 要件 때문에 職業여성의 從事年數는 남자와 달리 짧은 편인데다 單純노무직을 제외한 女子就業者의 從事年數를 보면 1~2년 미만인 女子가 가장 많아 全體의 27%이며 다음이 2~3년 미만이 전체의 거의 25%가 된다. 그 외에 3~5년 미만과 1년 미만의 女子도 각기 16%, 15.5%가 되며 3년 미만인 女子가 全體의 3분의 2라는 多數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專門, 技術職인 경우는 從事年數가 길어서 10년 以上の 經歷을 가진 女子가 26.9%나 되고 5~10년 미만의 經歷을 가진 여자는 24%이고, 3~4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수는 18.5%가 된다. 다음 行政, 管理職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여자가 거의 86%가 되고 있다.

다음 결혼여부를 볼 것 같으면 여성취업자중 離婚여성은 77.5%로 단연 많고 結婚여성은 19.6%의 작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離婚 또는 사별한 여자는 2.9%이다.

직업별 여자의 결혼상태는 未婚여성의 비율이 사무직 92.3%, 생산 및 생산관련직 종사자 89.7%, 「서비스」직 82.3%, 판매종사자 74.3% 등의 순위를 나타내어 이들 職種의 대부분이 미혼 여성으로 되어 있다.

한편 結婚여성이 많은 직종은 行政管理職 종사자(92.1%), 농림, 수산, 축산업 종사자(58.9%), 전문직 및 기술직(53.4%)이다. 外國의 例를 볼 것 같으면 日本의 경우 未婚여성 취업율

은 43.4%이고, 미국의 경우 17% 밖에 안되며 結婚여성의 높은 취업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專門, 기술, 관리직여성은 비교적 안정된 職業을 가져서 그 社會的 基盤은 굳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日本의 경우 專門職女性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72년 이후 한국의 경우 약간 줄어들긴 하였지만) 미국의 경우 드리어 減少되고 있는 현상이다. 즉 1930年代에는 美國의 專門職女性이 全體專門職 從事者의 50%를 차지한데 比하여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35%로 낮아진 것이다. 그 理由로는 美國女性이 結婚, 出産, 育兒 등으로 職場을 떠난 것이며, 둘째로는 2次大戰 以前에 볼 수 없었던 戰後 科學과 技術分野의 눈부신 發展과 擴張은 특별한 訓練과 새로운 技術을 要하게 되어 傳統的인 女性의 관심이나 能力 이외에 領域으로 看做되었던 것이다. 셋째로는 지금까지 “女性職業”으로 생각되었던 職種에 對한 男性態度的 變化를 들 수 있다. 初中等學校 教師, 社會事業家, 司書, 營養士는 물론이고 看護員까지도 男性들이 進出한 것이다.

### III

韓國에서의 女性의 職場進出은 꽤 오랜 歷史를 간직하고 있어 20世紀初로 거슬러 올라간다. 李朝末 外國의 産業技術의 導入으로 적은 規模나마 工場이 建設되어 女職工을 모집하게 되었다. 1900年 韓國政府는 典國局에서 최초로 紙幣를 만들게 되어 15名의 職工을 모집하였었다. 그리고 1900年代末에 이르러 女子高等學校 출신들이 社會에 나오게 됨으로써 女事務員應募에 나서게 되었다. 日韓瓦期會社가 최초로 女事務員을 募集하였고, 1912年 土地調查局이 이에 뒤따랐다.

다음 專門職으로 첫번째로 進出한 分野는 醫學이다. 일찌기 1895年 美國으로 留學하여 醫學을 工夫하고 돌아온 차예스터는 1900年 귀국하여 韓國의 첫 女醫師로서 서울保救女館과 평양廣惠女院에서 활약하였던 것이다. 그후 1910年

이후 日本으로 留學한 女學生 中에도 醫學專攻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醫療事業에 從事하는 看護員과 助産員도 養成되기 시작하였다. 1903年「마가레트·에드먼드」看護員이 韓國에 와서 保救女館의 看護員養成所를 설립 1908年 1回 卒業式에는 2名의 看護員을 輩出하였고, 세브란스病院에서는 1906年 간호學校를 시작하였다.

韓國專門職女性の 嚆矢는 醫師와 더불어 教師였다. 韓國의 女教師로써 社會進出한 사람은 19世紀末 梨花學堂의 이경숙과 연등학당의 申마리아였다.

外國 正規大學코스에서 專門教育을 받고 귀국하여 現代的 教師의 嚆矢가 된 사람은 河蘭史와 尹貞媛이다. 1900年代에 들어서서는 女學校가 계속 設立되어 女教師의 數도 점점 늘어갔다.

#### IV

다음은 專門職女性の 일반적 特性을 찾아보기로 한다. 1973年 가을에서 1974年 봄에 걸친 淑明女大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전문직 女性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9개 직종 의사, 약사, 간호원, 教師, 社會事業家, 言論人, 公務員, 司書, 教授 등 全國 7개 도시에서 532名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직 女性の 연령을 보면 20代가 가장 많아서 全體應答者의 45.9%를 차지하고 다음이 30代로 35.2%, 40세 이상은 19.0%였다. 男性의 경우와 對照的으로 20대에 職業을 가졌던 女性이 30代나 40代가 되어서는 차츰 結婚이나 其他理由로 職場을 그만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職種에 따라 年齡구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教授인 경우 40세 이상이 66.7%이고, 20代는 단1名이었고, 社會사업가는 40세 이상이 26.5%, 30代가 35.3%였다. 教師의 경우도 30代 이상이 비교적 높아 이러한 職業은 職業의 준비기간이 길거나 家庭生活과의 兩立이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看護員은 20代가 57.3%고 40代 以上이 9.3%로서 이러한 연령구성은

職業上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결혼관계를 보면 全體의 46.6%가 未婚이고 나머지는 既婚인데 死別되거나 이혼 등으로 單身으로 있는 경우도 8%나 된다.

職業構成에 있어서 專門職은 最高층에 속하는데, 특히 女性의 專門職은 相對的으로 높은 教育과 生活水準을 수반하고 있다. 80% 以上이 大學 以上の 학력을 갖고 月平均 家口收入도 平均수가 7萬원 以上이며, 社會的, 經濟的으로 上층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職種別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核家族이 많다. 가족적 배경 역시 上층이어서 그들의 父親도 높은 教育水準과 상위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약 50%가 基督教信者이고 10% 정도가 佛敎信者로서 宗教를 믿는율이 높다.

職業實態를 보면 初職을 갖게 되는 시기는 卒業後 1年 이내가 가장 많아서 全體의 64%이며 졸업후 1年 以上 결혼전인 16.4%, 결혼 후가 14.3%였다. 의사, 간호원, 교사 등의 70%~80%가 졸업 후 1年 이내에 職業을 가진 것을 보면 이런 職業들이 취직하기가 쉽고 學校教育과 직결되는 듯하다.

취직동기는 社會, 經濟的 側面, 家庭的 個人的 側面 등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적성이 맞아서가 33.5%, 우연히 취직했다가 25.8%, 家庭生活과 조화될 것 같아서가 15%, 社會的으로 인정받는 職業이기 때문인가 14.4%로서 취직 동기로는 個人的인 側面으로서 收入이 많아 취직했다는 經濟的 側面은 불과 3.8%였다.

職場收入의 使用用途를 보면, 일부를 家庭生活費에 쓰고, 나머지는 자의로 처리한다가 38.9%, 대부분 저축이 21.4%, 대부분 家庭生活에 쓴다가 18%, 대부분 용돈으로가 16.9%로서 용도가 결혼有無와 가족형태에 左右되는 것이지만 저축과 용돈으로 사용된다가 40%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의 生活水準이 높고 취직동기와 결부시켜 볼때 專門職女性の 취직은 經濟的 이유보다도 개인적인 向上이나 社會的 經驗을 얻기 위해서라는 결과를 再確認해 준다.

入職方法은 私的인 추천이 가장 많아 34.2%,

공개시험채용이 20.5%, 특별채용시험이 20.1%,  
親知를 통해서가 9.6%이다.

## V

다음은 職業女性의 社會의 地位를 평가하는  
收入, 昇進, 就業과 退職條件을 男女와 比較하  
여 알아 보았다.

우선 收入面에서 男女가 비슷하다가 66%로 가  
장 많고, 약간 적다가 21.8%, 훨씬 적다가 9.4%  
이며, 많다는 사람은 3% 미만이다. 男子와 비  
슷하다는 쪽이 많은 편이나 적다는 것이 31.2%가  
된다. 業務量이나 待遇面에 있어서는 男子와 비  
슷하다는 應答이 67.3%로 가장 많은데 나쁘다  
는 것이 24.6%, 좋다는 答이 8.1%로 收入에서  
와 마찬가지로 男女의 差異가 非專門職보다 적  
다. 昇進이나 昇級에 있어서의 差別은 비슷하다  
가 60%이나 잘 안된다는 應答은 36.3%나 된  
다. 이러한 昇進에 對한 不滿은 言論人, 公務  
員, 司庫의 경우가 더욱 심하여 各各 50% 이상  
이 男子보다 잘 안된다고 應答하고 있다.

就業面에 있어서는 전반으로 男子보다 <잘된  
다>, <잘 안된다>는 경우의 差異가 職業別로 심  
한 편이나 <잘 안된다>는 答이 全體의 31.8%로  
<잘 된다>의 15.4%보다 倍나 된다. 退職條件  
역시 男子보다 나쁘다는 應答이 23.5%가 된다.  
그러므로 높은 知的 水準과 專門技術을 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할 專門職女性도 職場에서  
의 男女차이를 느끼는 率이 보통 1/3이고 보면,  
다른 職業에서의 男女差別의 심한 度는 짐작이  
간다.

專門職 女性의 職業滿足度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앞으로의 女性의 職業에 관하여 나아가  
서는 社會進出에 관한 女性 各자의 主觀的 決定  
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調査결과 專門職 女  
性은 직업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전체의 42%가  
만족을 표명하고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43.2%이며, 11.5%가 불만을 표시했다. 이  
에 비해 일반 勤勞女性은 27.6%뿐만 만족이고  
72.4%가 불만을 표시했었다. 專門職女性의 경

우 經濟的 側面보다 자기의 적성에 맞고 心理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職業을 선택했으나 하는  
動機가 더욱 중요한 要因인 것 같다.

女性의 就業은 단지 經濟活動이나 個人的 趣  
向의 문제를 넘어 社會가 얼마나 開放의이나 아  
니나 또는 女性의 地位가 얼마나 向上되었느냐  
하는 尺度가 되기 때문에 職業女性에 對한 社會  
의 태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의가 있다.

一般的으로 職業女性 자신이 느끼는 職業女性  
에 對한 社會의 태도는 肯定的인 것 같다. 社會  
가 職業女性을 歡迎하는 것 같다는 應答이 38%  
로 가장 많고 歡迎도 反對도 안한다가 35.6%,  
충지않게 보는 것 같다가 26.6%이다.

또한 周圍사람들의 職業女性에 對한 태도를  
보면 大體로 肯定的이다. 父의 경우 55.1%, 母  
는 61.1%, 女子친구는 69.2%, 男子친구는 52.4  
%가 찬성이다. 그리고 社會도 一般的으로 職業  
女性에 對하여 肯定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女子가 男子보다 더 理解的이다.

專門職女性의 職業觀은 매우 健全하다. 이 가  
운데 女性도 男性과 같이 社會 속의 한 役割을  
달아서 수행한다는 것이 가장 많아 全體의 59.7  
%를 차지하고 男子와 같이 能力을 發揮할 機會  
를 갖기 위해서가 23.1%이다. 經濟的으로 여유  
가 있을 때 職業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否定的  
인 職業觀이 13.4%였다.

女性의 社會意識과 社會參與는 女性의 地位向  
上과도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

우선 專門職女性이 여러가지 身體的 精神的  
側面이나 家庭的 혹은 社會的 역할에서 男子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女性의 社會活  
動에 중요한 要因이 된다. 그러한 차이가 없을  
때 女子는 男子와 同等한 役割을 할 수 있고 同  
등한 地位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精神의 能力에 관해서는 同等해야 社會參與나  
社會活動에서 平等을 主張할 수 있을 것이다.

生理的 差이는 應答者의 91.5%가 인정하고  
肉體的 能力의 차이도 85.4%가 인정하였다. 그  
러나 精神의 能力의 차이에 對해서는 32.7%만  
이 인정하고 67.3%는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다.

家庭에서의 役割의 차이는 74.8%, 그리고 社會에서의 役割의 차이는 60%였다. 이는 女性의 社會進出을 상당히 肯定的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男性과의 地位의 平等에 이르는 한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家庭經濟를 男女가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率이 66.5%나 되어 女性의 家庭經濟參與에 對한 높은 肯定을 보이고 있다.

專門職 女性은 이미 職業을 통해서 社會活動에 參與하고 있으나, 이 외에 自發적으로 女性 團體에 參與하는 率이 많다. 우선 77.5%가 한 종류 이상의 團體에 加入하고 있고, 62.2%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團體活動에 參與하고 있다. 이 社會參與率은 매우 높은 것이다.

또한 專門職 女性의 政治意識과 參與度는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歐美를 뒤쫓고 있는 女性 解放運動에도 83%가 贊成하고 있는 실정이다.

## VI

女性이 職場에 많이 進出하는 것은 女性의 社會的 地位向上과 큰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經濟의 高度成長과 技術개발로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되어 단순히 未熟練勞動者로서의 女性의 취업은 低賃金에 묶여 女子취업자의 量만 증가되는 것이지 女性의 地位向上을 바라기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男女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바라며 職業女性의 中樞인 專門職 女性의 증가가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專門職 女性에 대한 조사는 一般職

女性보다는 모든 면에서 높은 社會的 地位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男女差別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專門職 女性의 애로점으로는 직무상의 남녀 차별보다는 入職昇進과 退職條件에서의 差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根本的인 문제점은 남녀균등 대우문제와 더불어 職業과 家庭과의 兩立문제 즉, 母性을 가진 女性으로서의 結婚, 出産, 育兒 등 主婦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職業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結婚 후 퇴직하였다가 子女들이 어느정도 成長하였을 때의 再就職의 경우 문호개방과 資質向上을 위한 再教育문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 대책으로는 專門職 女性 자신의 철저한 職業意識과 母性을 가진 직업 女性에 대한 가족과 社會의 이해와 보호가 요청된다. 그리고 職場의 재훈련의 실시 家庭에서의 生活을 영위하기 위한 生活의 合理化와 科學化가 요망되고 새로운 專門職種 개발도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高等教育을 받고 社會에 배출되는 女子들이 많음에 비추어 有能한 職業女性의 潛在力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女性人力の 活用の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法制上으로 본 母性保護와 남녀평등 대우문제도 꼭 實現되어야겠다. 女性의 노동문제는 단순한 職場의 문제가 아니고 家庭과 社會에 있어서의 女性地位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專門職 女性의 각성과 實力양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 「RN 교재」 안내

현재 본회에서 실시하는 영어강습의 (R. N. Review Course) 교재  
"Nursing Examination" Review Book Vol. 1, 2, 3을 안내합니다.

내용 : 내외과, 정신과, 산소아과간호학

가격 : 2500원, (우송신원 200원 첨부)